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민족 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민족 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과 부장들, 부서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간부들이 참가하였다.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순결무구한 총정과 그리움의 마음이 끝없이 달려오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

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혁명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깡그리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우리 조국과 인민앞에 한없이 고귀한 혁명업적을 남기신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한생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시며 7년 전 이날 위대한 장군님의 령전에서

맹세다짐대로 우리 당은 지난 7년세월 장군님의 사상과 로선, 장군님식 혁명원칙을 고수하고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왔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전당이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전사로서의 의리와 본분을 지켜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음의 양보도 없이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끝까지 실현하기 위하여 역세계 싸워나가자고 호소하시였다.

본사기자

인민적령도자의 고결한 한평생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칭송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선생으로 여기시고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고귀한 생애를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칭송하였다.

로씨야신문 《자브트라》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령도자의 한평생은 흰눈과 같은 순결한 생애였다. 먼 외국방문의 길에서도 두고 온 인민들을 생각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인민사랑의 현지지도길에 계시였다. 에리트레아신문 《알 아흐바르 알 마싸이》는 이렇게 서술하였다. 김정일각하의 한평생은 세차게 떠오르는 불길과도 같은 한생이라고 할수 있다. 특히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해인 2011년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자신을 불태우신 한해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하여 2011년 온 한해를 앞장에서 걸으시였다. 그토록 열렬한 조국애와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신 절세위인의 헌신에 의하여 그해에만도 조선에서는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과 혁신들이 연이어 창조되였다. 인도네시아신문 《인터내셔널 미디어》는 위대한 김정일각하는 인민을 굳게 믿고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조선을 이끄신 진정한

인민의 령도자이다, 력사의 모진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식사회주의가 온 세상에 빛을 뿌릴수 있는것은 그이의 탁월한 령도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브라질선군정치연구소는 인터넷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한평생 인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시였으며 그에 저촉되는것은 사소한것도 허용하지 않으시였다.

그이의 뜨거운 인민사랑을 전하는 전설같은 이야기들을 다 말하자면 끝이 없을것이다. 이처럼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해 자신을 깡그리 바치신 령도자를 인민들이 어찌 진심으로 받들고 열화와 같이 흠모하지 않겠는가. 령도자의 서거에 접하고 견디기 어려운 슬픔속에 몸부림치던 조선인민의 모습은 전세계를 감동시켰다. 나이제리아신문 《나이제리언 오브저버》는 이런 글을 편집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의 리익을 모든 사색과 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으시였으며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였다. 한없이 소박하고 겸손하며 소탈한 인민적품성을 지니신 그이께서는 자신을 군로하는 인민의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수천척 지하막장에도 들어가시고 험한 포전길도 걸으시였으며 인민들의 이야기도 허물없이 들어주시였다. 참다운 인민적령도자로서의

그이의 숭고한 영상은 조선인민과 세계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될것이다. 캄보디아신문 《노코르 롬 데일리》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각하의 서거 7돐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전하였다. 김정일령도자는 한생을 순결하게 사신분이다. 인민의 행복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였다. 그이의 희생적인 헌신에 의하여 조선에서 사회주의가 수호되고 강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이 열리게 되였다. 절세위인의 고결한 생애는 조선인민과 세계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영원히 간직되어있다.

본사기자